

5

청각 주도적 교회와 시각 지향적 교회¹⁾

윤천석 박사 / 평택대학교 Ph. D.

1. 서 론

1) 문제제기

2007년 7월 10일 현 교황은 ‘가톨릭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이고 종교 개혁 이후 생겨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다.’²⁾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문명 전체가 시각화되는 듯한”³⁾ 시각 주도적인 현대 문화상황에서 ‘영

1) 본 연구는 필자의 다음 논문 중 일부(4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칼빈 신학에 있어서 교회 본질 이해” 박사학위 논문(Ph. D.), 평택대학교, 2007. —를 수정 보완한 것이고, 2007년 10월 22일 제4차 칼빈학회 정례 발표회에서 발표하였다. 여기서 발표하고 토론된 내용을 보완하여 좀더 다듬고 내용을 일부 첨가한 것이다. 이 논문의 영어 제목은 다음과 같다. “Aural-oriented church and visual-initiated church in John Calvin : Centering on hi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김은홍, “로마 가톨릭〈교회론 문답〉 분석” 「소리」, 2007년 7~8월호, 58~63. “교황 : 가톨릭교회가 유일한 교회,” 「동아일보」, 2007년 7월 12일, A2면.

3) Gregory Flaxman, ed. *The Brain is the Screen*, 박성수 옮김, 「뇌는 스크린

화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⁴⁾는 의미에서 “뇌는 스크린이다”⁵⁾라고 인식하면서 “영화적 가톨릭주의”⁶⁾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중세를 비판할 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문구로 사용되던 이 내용을 양자적 시공간에서는 ‘전자입자 스핀 각도를 이용하면 점 위에 올라앉을 수 있는 천사 숫자를 헤아리는 행위가 무의미하지 않다.’⁷⁾는 사유방식도 생겨나면서 2008년에는 수많은 디지털 정보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 “신(新)중세 암흑기”⁸⁾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가톨릭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에 교황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은 시간을 공간화시킨 “중간계(의)⁹⁾ 지혜”¹⁰⁾를 전하는 “반지(의) 제

이다. 블로즈와 영화철학」(서울 : 이소, 2002), 22.

4) Ibid., 23.

5) Ibid., 34, 35, 529.

6) Ibid., 531.

7) Brian Greene, *The Fabric of The Cosmos*, 「우주의 구조-시간과 공간, 그 근원을 찾아서」(서울 : 승산, 2006), 176–78, 161–86. 이 책이 처음 발행된 연도는 2004년이다.

8) Maggie Jackson, *Distracted : The Erosion of Attention and The Coming Dark Age*(New York : Prometheus Books, 2008), 14, 213. 참조 “디지털 정보 흥수……新중세 암흑기 올 수도,” 「동아일보」, 2008년 6월 21일자, A6면.

9) 이러한 표시를 한 것은 ‘-의’에 대한 것의 표현과 번역에 대한 반성을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2격(속격)을 ‘-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일본어 ‘の’에 대한 잔재 때문이며,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도 ‘of’를 거의 기계적으로 ‘-의’라고 번역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문법에서는 ‘-의’는 〈관형격〉으로 되어 있고, ‘-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오는 명사(後行명사)〉가 주체가 된다. 이렇게 후행 명사가 주체가 될 경우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익(義)’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익(義)’이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는 관형사가 되어 보조 개념이 되기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최경봉, “관형격 구성의 구조와 구조의 문제,” 「국어의 격과 조사-한국어학회」(서울 : 월인, 1999), 744, 748, 757, 759–762, 768, 769. 이오덕, 「우리말 바로쓰기 1」(서울 : 한길사, 2003), 129–136. 이수열, 「우리말 바로쓰기」(서울 : 현암사, 2002), 175–190.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신학적 분석은 다음 논문을 참조 바람, 윤천석, “속격(2격)을 통해서 본 칼빈 신학이해-「기독교 강요」속격 〈Dei〉에 대한 번역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제10집(2008년, 봄 여름호), 98–132.

10) 책 서문 제목이다. Gregory Bassham and Eric Bronson ed. *The Lord of*

왕”¹¹⁾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 일간지가 평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자 4 : ‘반지의 제왕’이란 신화는 고대 신화와 어떻게 다릅니까?

신화학자 : 우선 신전(神殿)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21세기 신전은 극장이었다고 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극장이란 신전(神殿)에서, 영화란 신화를, 관람이란 제의(祭儀)의 형태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¹²⁾

즉, 중세교회 특징은 영화처럼 시각 주도적 사유가 핵심이고, 이것으로 인해 세속화¹³⁾되었고, 현 시대 또한 시각 주도적 사유로 흐르고 있다. 인간은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한다. 현대에 가

the Rings and Philosophy : One Book to Rule Them All, 최연순 옮김, 「철학으로 반지의 제왕 읽기」(서울 : 이룸, 2003), 6, 217–239. 중간계는 시간을 공간화 시킨 장소로서 연옥과 맥을 같이한다(232, 309). 다음 페이지는 “중간계”라는 어휘가 사용된 부분이다. 25, 27, 31, 48, 49, 50, 64, 71, 87, 91, 134, 135–37, 164, 175, 176, 204, 219, 223, 224, 228, 229, 242, 248, 249, 250, 257, 261, 266, 268, 271, 275, 283, 284, 290.

11) Timothy B. Cargal, *Hearing a Film, Seeing a Sermon—Preaching and Popular Movies*(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89–101.

12) “반지의 제왕,” 「조선일보」, 2003년 1월 24일, D1면.

13) 영어에서 ‘세속’이라는 단어 ‘secular’는 이 세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eculum’에서 온 말이다. 이 ‘seculum’이라는 말은 본래 ‘세상’을 뜻하는 두 가지 라틴어 단어 중 하나이고, 한 단어는 ‘mundus’이다. ‘seculum’은 헬라어로 시대, 기원의 의미를 지닌 아이온(*αιών*)과 대응된다. ‘mundus’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 *κοσμός*와 대응이 되는 단어이다. 이것이 공간적 의미로 존재를 파악하는 헬라인과 시간적 의미로 존재를 파악하는 히브리인들과 긴장 관계 속에서 공간적 틀로서 역사적인 사건을 파악하면서 기독교는 진정한 세속화가 아닌 세속주의로 변질되였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 가톨릭교회라고 쿡스는 이해한다. Harvey Cox, *The Secular City—Secular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구덕관 외 옮김, 「세속도시」(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26–29. Jacques Ellul,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샤크엘루번역위원회, 「뒤틀려진 기독교」(서울 : 대장간, 1998), 110–11.

장 가까이 있는 것은 TV와 컴퓨터이다. 이러한 ‘물질인 TV’¹⁴⁾는 유물론적 대상으로서 ‘중요한 토템적 대상(totemic object)과 항목’¹⁵⁾이 되면서 “가정 제단(family altar)이 되었다.”¹⁶⁾ 특히 컴퓨터가 주도하는 시각적 가상공간에 대해서 버트하임은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중세와 사이버 시대 공간개념이 유사하다. 연옥이 탄생한 존재론적 공간과 이에 대적할 만한 유사한 예가 바로 사이버 공간’¹⁷⁾이라고 지적한다.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적 명제가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¹⁸⁾로 바뀌고 “포스트휴먼”(post human)¹⁹⁾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인간성에 대한 근본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TV와 컴퓨터가 정보(주 : information = in + formation : 형상을 주입한다)를 제공’²⁰⁾하면서 중간

14) Chris Jenks, ed., *Visual Culture*(London : Routledge, 2002), 180

15) Ibid., 22, 181. 원문은 다음과 같다. “Crucially visible and totemic object in most homes”(22), “totemic item of furniture”(181).

16) Ibid., 22.

17) Margaret Wertheim, *The Pearly Gates of Cyberspace—A History of Space From Dante to the Internet*(New York : Norton, 1999), 17–43, 68–69, 283–308. 이하에서는 제목을 ‘The Pearly Gates of Cyberspace’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18) Jeremy Rifkin, *The Age of Access*, 이희재 옮김, 「소유의 종말」(서울 : 민음사, 2001), 309.

19) Glenn Yeffeth ed. *Talking the Red Pill—What is the matrix*, 이수영·민병직 옮김,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매트릭스의 철학, 과학」(서울 : 굿모닝 미디어, 2003), 122. 김선희, 「사이버 시대의 인격과 몸」(서울 : 아카넷, 2004), 6. 현대 인문학 뉴 트렌드에 대해서 한 일간지는 ‘포스트 휴먼 인문학’이라고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다. “인간-기계 경계 붕괴……新인류 정체성 찾기—인문학 뉴 트렌드 ‘포스트 휴먼 인문학(3)’”, 「동아일보」 2008년 3월 19일자, A20면.

20) “정보는 형상 없는 존재에 형상을 주입(infus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Hans Christian von Baeyer, *INFORMATION : the New Language of Science*, 전대호 옮김,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서울 : 승산, 2007), 42. 다음도 참조 바람. Theodore Roszak, *The Cult of Information*, 정주현·정연식 옮김, 「정보의 송배」(서울 : 현대미학사, 2005), 13–30, 65–88, 209–43. 로작(Roszak)은 “정보과학기술”을 한 단어로 사용한다(83).

에서 우리 의식을 재조직하고 있다. 중세교회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회와 사제, 그리고 전통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타락한 것이다. 이 결과로 중세교회에서 시각 주도적인 공간분할적 사유로 말미암아 의식이 재조직되면서 나타난 것이 연옥 개념과 성인승배였다.²¹⁾

1995년 가톨릭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자크 가이오(J. Gaillot) 주교를 교구가 없는 가상 주교에 임명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²²⁾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이버(cybernetic)의 어원을 알아보자. 사이버라는 말은 그 어원이 선장($\kappaυβερνήτης$)이고, 이것이 공간(space)과 결합하여 사이버 공간이 된 것이다. 유라큘로라는 강풍(행 27장)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배라는 기술을 가장 잘 사용하는 선장 자체로 무장한 선주가 하는 말을 더 믿었듯이(행 27:11) 이 시대 역시 과학·기술·수학이 결합된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말을 더 좋아하는 시대에 교회는 직면해 있다. 이것은 사이버라는 말이 선장에서 왔기 때문에, 배가 들락거리는 것처럼 ‘포탈(potal/관문) 사이트’라는 말이 생기고, ‘a href=’라는 말에서 ‘a href’는 ‘Hypertext Reference’ 약자로서 ‘하이퍼텍스트 참조’라는 뜻인데, 여기서 ‘a’라는 단어는 ‘anchor’를 줄인 말로서 항해하는 ‘닻’을 의미한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닻을 내리면 바로 파도타기(surfing)가 시작된다.²³⁾

이제 가톨릭 가이오 주교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들으면 이 사이

21) Jacques Le Goff, *La naissance du Pugatoire*, 최애리 옮김, 「연옥의 탄생」(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3), 26–32, 313–20, 450–58. 성인승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바람. Peter R. L. Brown, *The Cult of the Saints :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정기문 옮김, 「성인승배」(서울 : 새물결, 2002).

22) 가톨릭 교회법에 주교는 해고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회는 주교에게 꼭 교구를 지명해 주어야 하기에 4~6세기에 존재했지만, 현재는 복사하라 모래언덕으로 있는 가상교구인 아프리카 알제리아 파테나(Partenia) 교구로 지명을 받게 된다. 황상민, 「사이버 공간에 또다른 내가 있다」(서울 : 김영사, 2000), 170–73.

23) Yoon Chun Suk, “Ministry Strategy In a Cyber Age Change From visual Education To Auditory One”(Dr. Min., South Hamilton : 2003), 3–5.

버 항해와 파도타기가 우리 삶과 신앙과 교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원시교회는 일종의 인터넷이었어요. 이것이 로마 제국이 원시교회와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지요. 초기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물리적 장소에서 물리적 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연계(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즉 서로 간의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어요.²⁴⁾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종교를 물질적 조건과 사회적 실재의 기초 위에 고찰”²⁵⁾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존재론적 유물론이다. 이러한 시대에 맥그라스(Alister McGrath)가 최근(1999)에 저술한 「종교개혁사상」에서 “중세는 은혜를 물질(substance)로 된 한 종류”²⁶⁾로 평가한 이것은 이 시대에 적절한 평가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교회는 긴장하기보다는 이 시대 조류를 따르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폴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로버트 존스톤(Robert K. Johnstone)은 영화를 신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는 ‘영화를 통해서 전전한 형상 신학이 구현되기를 원하고, 로마 가톨릭 영화 연출가에게 눈을 돌려서 아퀴나스가 원했던 것을 시도해야 한다’²⁷⁾고 말한다.

그러나 고든 콘웰 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24) 황상민, 「사이버 공간에 또다른 내가 있다」, 173-74.

25) 정의채, 「존재의 근거문제」(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7), 274.

26) Alister E. MaGrath, *Reformation Thought-An Introduction* 3rd ed., (MA : Blackwell, 1999), 55. 영어 원문은 “the medieval understanding of grace as a kind of substance”이다. 여기서 ‘substance’를 실체나 내용으로 번역하지 않고 물질로 번역한 것은 이 책 내용과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27) Robert K. Johnston, *Reel Spirituality :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옮김, 「영화와 영성」(서울: IVP, 2003), 111-3, 125, 89-147.

굳원(Wayne E. Goodwin)은 21세기 기독교 리더십(leadership)에 대한 한 학술 세미나에서 ‘신학교육 역사는 두 가지 현실—구술성과 문자성—에 대한 충돌이었다’²⁸⁾고 말한다. “신학교육은 청각성과 시각성,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지도자가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사이버 시대에 지적한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질(대상)을 근거로 하는 시각 주도적이고 공간 분할적인 상황에서 개혁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칼빈이 전하는 교회본질을 쉐마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

본 논문에서 자주 언급될 ‘청각 주도적’ 혹은 ‘청각 지향적’이라는 말과 ‘시각 주도적’ 혹은 ‘시각 지향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먼저 ‘청각 주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듣는 쉐마 전통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구약에서 ‘카할’(קהל)을 번역한 것으로 목소리를 의미한다.²⁹⁾ 이것은 “교회는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³⁰⁾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때만 순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개혁교회와 신학은 ‘인간 중심으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는 신학을 배격’³¹⁾한다. 이 쉐마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바울·어거스틴·칼빈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말한다.³²⁾ 교

28) Wayne E. Goodwin, *Leadership in a Time of Global Change : Principle and Practices*, 평택대학교 주최 전국신학지도자 초청 학술세미나 강의안(서울: 신라호텔, 2000년 2월 17일), 26.

29)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신경수 옮김, 「복음주의 조직신학」(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221-24. 던(James D. G. Dunn)도 “에클레시아는 카할 회중이었다.”고 말한다.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박문제 옮김, 「바울 신학」(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3), 718.

30) Millard J.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 225.

31)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서울: 이례서원, 2001), 481.

32) James D. G. Dunn, 「바울 신학」, 727. 939. 던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바울을

회본질은 하나님 말씀·듣는 쉐마 공동체이다. 성경에서 쉐마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다.”³³⁾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언약에서 핵심이고, 서론이다.’³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들음(신 6:4)이 전 존재를 규정하고 사람 노릇하는 핵심’³⁵⁾이고, “듣고·행함”³⁶⁾이 본질이며,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로운 마음’(לִבְנָה בַּלְעָד : listening heart : 왕상 3:9)도 하나님 ‘말씀 듣는’³⁷⁾ 마음이었다.³⁸⁾ 이런 이유 때문에 브라운(Colin Brown)이 편집한 「신약신학사전」에는 ‘듣는다’(hear)는 어휘와 ‘순종’(obey)이라는 단어를 같은 항목으로 나루면서 ‘듣다’(ἀκούω)를 설명하고 있다.³⁹⁾

둘째, 시각 지향적이라는 말은 인간 주도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칼빈에게 있어서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 말씀듣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가까이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아무 생각 없이 붙잡으려 하기”⁴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각적 유목

통해 기록한 성경을 7권만 수용하는 위험성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부합하는 면이 있기에 인용한다. 정성구, 「칼빈主義 思想大系」(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95), 139.

33)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Grand Rapids : Zondervan, 1978), 41.

34) Ibid., 41–44.

35) Hans Walter Wol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문희석 옮김, 「구약성서의 인간학」(서울 : 문도출판사, 1991), 141–44, 94, 99.

36) Walter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Testimony, Dispute, Advocacy*), 류호준·류호영 옮김, 「구약신학」(서울 : CLC, 2003), 675.

37) ‘말씀듣는’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띄어 쓰는 것이 맞으나,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과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일어설 수 있고, 신앙생활의 근본이 말씀 듣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에 한 단어로 붙여서 사용하기로 한다(stipulative definition).

38) Gerard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유효준·류재원 옮김, 「구약의 메시야 사상」(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376. KJV : “an understanding heart”로 NIV : “a discerning heart”로 번역하고 있다.

39) Colin Brown Ed.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II.* (Grand Rapids : Zondervan, 1986), 172.

민처럼 떠돌고 싶어하기⁴¹⁾ 때문이다. 시각 주도적 사유는 중세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였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공동체를 과시하려 하였고, 자기 의(義)를 쇼(show)하듯 보여 주려 하였다. 예수님께서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네 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has seen)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has seen)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show) 하느냐”(요 14:9)고 책망하셨다.⁴²⁾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시각 주도적이라는 의미를 겉으로 보이는 것(to show)이 본질적으로 보는 것(to see)까지도 지배한다는 의미로 시각 주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stipulative definition).⁴³⁾

현 시대가 시각 주도적 사유로 변한 핵심에는 ‘시간을 공간화시킨 인식론적 반전’⁴⁴⁾이 핵심이다. 시간은 ‘변화’에서 영적(靈的)인 것, 역사와

40) “major pars mundi quicquid obvium est temere arripit.”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1559 libros I et II.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Petrus Barth Guilemmus Niesel, ed., (München : Chr. Kaiser Verlag 1926–52). I. xii. 1, 103. 이하는 OS. *Inst.*(1559)로 요약하기로 한다. 이 내용은 본인이 번역한 것이다.

41) Brian Massumi, *A User’s Guide to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 Deviation from Deleuze and Guattari*, 조현일 옮김, 「천개의 고원 사용자 가이드」(서울 : [en : ford], 2005), 8–10, 12–15.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삼환 옮김, 「차이와 반복」(서울 : 민음사, 1968), 103–106, 140–48, 560–67. 유목민은 방랑적 일신교이다. 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Mille Plateaux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서울 : 새물결, 2001), 735, 729–44, 938–53. 이진경, 「노마디즘 1–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서울 : Humanist, 2002), 82, 93–95, 111–17, 362–434.

42) 요한복음 14:8~9에서 예수께서는 빌립과 대화하실 때, 빌립은 ‘과시적 보여 줌’(show, δεῖξον)을 사용하고 예수께서는 ‘보여진 것’(seen, ἐώρακεν)과 ‘과시적 보여 줌’(show, δεῖξον)을 구별하여 사용하신다.

43) John Hospers,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Revised*, ed. (London : The Gresham Press, 1973), 32–39.

44)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서울 : 푸른 숲, 2002), 55–66, 79–92, 235–58.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이윤희·이현희 옮김, 「포스트 모더니티」(서울 : 한국사회학연구소, 1991), 31–35. Stephen W.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From the Big Bang to*

관련해 연구되어 오면서, 한 번 흘러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비가역적(非可逆的, irreversible) 특징을 지니기에 청각적 사유와 관련이 있지만, 공간은 ‘변화’와 관련되어 주로 물질적인 것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오면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는 가역적(可逆的, reversible)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시각적 물질⁴⁵⁾(대상)과 관련이 있다.⁴⁶⁾ 크레이그(William Lane Craig)는 서양 철학사를 ‘제논부터 런셀 까지 시간을 공간화시킨(“spatializing” time)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지적 전통은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이다.⁴⁷⁾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을 공간화시켰다’는 인식론적 의미는 현 시대에 과학·기술·수학이 결합하면서 ‘19세기 이후 초월적 개념은 이미 사라지고’,⁴⁸⁾ 물질 공간이 영혼과 신적인 영원을 잠식했기에 “과학적 사제 원리”⁴⁹⁾라는

Black Holes, 「시간의 역사」, 현정준 옮김(서울 : 삼성아메아, 1988), 52–54, 56–57, 58, 90–92, 127–28, 129–152, 162–64, 173–74, 202, 204, 207, 215–229. 호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질에 대한 연속을 믿었다고 파악한다(105). 그는 ‘우주를 물질로 파악한다’(152).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서울 : 소명출판, 2001), 30–80, 214–234.

45) 시각적 표현을 강조하면 물질적인 구체성으로 나타난다. 신방훈, 「시각예술과 언어철학—후기 해체주의와 예술의 인터텍스트」(서울 : 생각의 나무, 2001), 45, 98–99, 158.

46) P. J. Zwart, *About Time—A Philosophical Inquiry into the Origin and Nature of Time*, 권의무 옮김, 「시간론」(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50. 다음도 참조 바람. Hans Reichenbach, *The Philosophy of Space and Time*, 이정우 옮김, 「시간과 공간의 철학」(서울 : 서광사, 1986), 3, 69–72, 139, 150. J. T. Fraser ed., *The Voice of Time*(New York : George Braziller, 1996), 163–75. Tom Stafford and Matt Webb, *Mind Hacks—Tips & Tools for Using Your Brain*(Cambridge : O'REILLY, 2005), 148, 173–74, 32–34, 270–73. Jeremy Rifkin, 「소유의 종말」, 16–20.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London : Routledge, 2002), 2–3.

47) William Lane Craig, *Time and Eternity—Exploring God's Relationship to Time*(Illinois : Crossway Books, 2001), 188.

48) 김학수, 「과학문화의 현황과 도전」, 「과학문화의 이해—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서울 : 일진사, 2000), 23.

49) Alan Francis Chalmers, *Science and Its Fabrication*, 신일철, 신중섭 옮

말도 출현하고 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 의미를 좀 더 알아보자.

2. 아리스토텔레스와 시각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시각 주도적 환상(fantasy)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 사람’⁵⁰⁾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를 시각 주도적 사유로 만든 원인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⁵¹⁾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을 공간화시킨 것을 잘 알려 주는 책은 「자연학」(*ΦΥΣΙΚΗ*)이다. 그는 이 책 4권 10~11장에서 시간을 운동과 관련시켜 측정하여 보려고 한다. “시간은 지금에 의해서 계속되고, 지금에 의해서 나누어 진다.”⁵²⁾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운동과 관련이 있다.”⁵³⁾ 그러므로 운동과 변화는 “시간에 의해서 측정이 되고, 시간 역시 운동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⁵⁴⁾ 고 말한다. 이러한 운동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과 후’(before and after)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간은 ‘전과 후’에 관한 운동(하는) 수”⁵⁵⁾로 이해한다. 보만(Boman)은 이러한 ‘전과 후라는 개념이 공간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⁵⁶⁾

김, 「현대의 과학철학 2」(서울 : 사광사, 2001), 148.

50) 황수영, 「물질과 기억-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서울 : 그린비, 2006), 310. 다음도 참조 바람. 장영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203–17, 240–48.

51) Margaret Wertheim, *The Pearly Gates of Cyberspace—A History of Space From Dante to the Internet*, 99.

52) W. D. Ross, *Recognitio. Aristotelis Physica*(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0), 220^a5.

53) Ibid., 219^a2–3.

54) Ibid., 220^a15–16.

55) Ibid., 220^a25–26.

56) Thorleif Boman,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Jules L. Moreau tr., (New York : Norton, 1970), 149–150.

죄까지도 수학적으로 나눌 수 있고, 숫자처럼 셀 수 있는 돈과 결합되어 생겨난 곳이다.⁷²⁾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심판하시는 절대적 영역은 천국과 지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는 공교회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교회와 사제들이 중보를 자처하면서 ‘중간에서’ 죄를 교회와 하나님에 반반씩 나누어 가진다.⁷³⁾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장엄한 장례는 인간(의) 하나(의) 권리이다.”⁷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인들(의) 기도”라는 항목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보다도 성인들은 비록 신적 본질(神的本質)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⁷⁵⁾을 바라볼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복(至福, 또는 행복)은 그 지복이 부여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드리는 신심(信心), 서원(誓願) 기도를 알게 된다.⁷⁶⁾

이제 순교자는 성인이 되고 성인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에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⁷⁷⁾ 성인

72) Ibid., 552.

73) Ibid., 21.

74) Giacomo Dal Sasso-Roberto Coggi, ed. *Compendio della Somma Theologica di San Tommaso d'Aquino*, 이재룡·아동익·조규만 옮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서울 : 가톨릭대학출판부, 1993), 561. 여기서 ‘Theologic’은 이탈리아어이다. 언어적 선입관을 피하기 위해서 기록하기로 한다.

75) 번역문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주제와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수정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연구자가 강의하면서 경험한 것은 이제 개신교를 믿는 학생이나 가톨릭을 믿는 학생이나 거의 ‘하느님’으로 기록하여 레포트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 정체성을 위해서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다.

76) Giacomo Dal Sasso-Rberto Coggi, ed.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562.

묘지는 ‘수호천사와 연결시켜 주는 보호성인 역할을 한다.’⁷⁸⁾ 이러한 수호천사 개념을 사이버 공간과 관련지어 “천사체들의 춤 : 집단 지성의 무신론”⁷⁹⁾이라고 피에르 레비(Pierre Levy)가 평가한 것을 이 시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연옥교리가 생긴 이후에도 지옥교리는 그대로 있다.⁸⁰⁾ ‘사랑을 강조했던 중세교회’⁸¹⁾는 ‘지옥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골칫거리’⁸²⁾였기에, 하나님 주권인 천국과 지옥보다는 연옥과 성인들이 더 중요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2006) 발간된 한 철학사전은 ‘불사(不死, immorality)라는 항목에서 인공두뇌 부도덕성(cybernetic immorality)⁸³⁾을 언급하면서 ‘유물론(materialism)과 연결해서 사이버 가상공간 문제를 다루고’⁸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도덕적 연옥공간 개념과 연결해서 현대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이들은 ‘죽은 이들은 산 사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생물학적인 의미인 반감기처럼 특수 스프레이를 뿌리면 반감기로 되돌아오는 (주 :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

77) Peter R. L. Brown, 「성인승배」, 49.

78) Ibid., 143.

79) Pierre Levy, *L'intelligence collective—Pour une anthropologie de cyberspace*, 권수경 옮김, 「집단지성 –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2), 114.

80) Alice K. Turner, *The History of Hell*, 이찬수 옮김, 「지옥의 역사 I」(서울 : 동연, 1998), 169.

81) 정기철, 「시간문제와 종말론–시간의 철학과 시간의 신학」(서울 : 한들출판사, 2000), 210. 그러나 개혁교회는 믿음을 강조했다. 복지와 사랑을 주제로 하는 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를 오직 믿음(sola fide)보다는 사랑을 통한 믿음을 강조하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이재하, “루터의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fides formata caritate)에 대한 새로운 이해,”(제50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2007년 11월 9일 인쇄본), 70-84.

82) Alice K. Turner, *The History of Hell*, 이찬수 옮김, 「지옥의 역사 II」(서울 : 동연, 1998), 297.

83) Garrett J. DeWesse, “Immortality,”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Donald M. Borchert, IV, (2006), 616-19.

84) Keith Campbell, “materialism,”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Donald M. Borchert, VI, (2006), 11-13.

는 자기 주도적 가역적 공간이 바로 연옥이기에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다.) 새로운 의미로서 연옥⁸⁵⁾에서 살아가는 시대이기에 ‘단테 신곡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연옥은 지금도 대중문화에서 의미가 있다.’⁸⁶⁾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 주도적 사유 때문에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죄가 전가된 것을 교회가 바르게 전하는 것’⁸⁷⁾을 거절했다. 성인들을 숭배하면서 신자들이 기도드림으로 인해서 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semel*)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으로, 그 효력은 영원하고 다른 희생을 바칠 필요가 없다.’⁸⁸⁾는 복음을 중세교회는 “구원은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⁸⁹⁾는 것으로 변질시키면서 연옥을 확장시켰다. 결국 ‘이교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⁹⁰⁾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최대한 억제시키기’⁹¹⁾면서 철학과 신학을 조화라는 이름으로 합했다. 우주와 자연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사유는 “자연은 신이다.”⁹²⁾(*naturam esse Deum*)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러한 사유는 철학사에서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창 2:19)은 기억치도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면서 죄보다는 인간 이성을 강조하는 관념론적 전통이 되었고, 유물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85) Marshall W. Fishwick, *Popular Culture : Cavespace to cyberspace*, 황보종우 옮김, 「대중의 문화사-동굴에서 태어나 사이버 공간으로 걸어나오다」(서울 : 청아출판사, 2005), 200.

86) Ibid., 164-65.

87) OS. *Inst*(1559)., II. xvi. 6, 489-90.

88) OS. *Inst*(1559)., IV. xviii. 13, 429.

89) Marshall W. Fishwick, 「대중의 문화사-동굴에서 태어나 사이버 공간으로 걸어나오다」, 165.

90) Richard E. Rubenstein, *Aristotle's Children*, 유원기 옮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들」(서울 : 민음사, 2004), 411.

91) OS. *Inst*(1559)., I. v. 5, 48.

92) OS. *Inst*(1559)., I. v. 5, 50.

와 자연’(창 1장)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시킨 이러한 사유들이 사이버 공간에 집중되어 있기에 개혁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왜 「사이버 맑스-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⁹³⁾ 같은 책이 발간되었는지를 이해하면 개혁교회가 긴장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다.

3. 말씀듣는 청각 주도적 삼위일체론적 교회

1) 말씀듣는 교회와 시각 지향적 교회

「기독교 강요」 4권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 붙잡아 두시려고 외적으로 지지되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⁹⁴⁾이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칼빈이 말하는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께서⁹⁵⁾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여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요 14:26)나게 하는 삼위일체론적 교회를 말한다. 교회 역사에서 삼위일체 논쟁을 할 때, 핵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삼위를 강조하면 일체가 희생이 되어서 다신론이 되

93) Nick Dyer-Witheford, *Cyber-Marx : Cycle and Circuits of Struggle in High-Technology capitalism*, 신승철 · 이 현 옮김, 「사이버 맑스-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서울 : 이후, 2003), 다음 책도 참조 바람. 다음 책은 2003년 5월 23일 이화여대에서 제1회 맑스코뮤날레에서 발표된 55개 논문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맑스코뮤날레 역음,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1. 2.」(서울 : 문화과학사, 2003).

94) OS. *Inst*(1559)., IV. 1. 이 내용은 본인이 특히 속격(2)격에 주의를 기울여 번역한 것이다.

95) 성경검색 엔진 : 내 사랑하는 책(개역개정),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곳은 1,031회이고, “하나님께서”라고 번역된 곳은 51회이다. 번역에 대한 일관성과 존칭어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재오는 국내에 있는 영한사전 7권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나(I)를 ‘제가’ 혹은 ‘저’라고 존칭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사전은 한 권도 없다고 말한다. 이재오, 「영한비판사전」(서울 : 궁리, 2005), 6.

고, 일체만을 강조하면, 삼위가 희생되면서 단일신론이 되는 것이 문제였다.⁹⁶⁾ 이 논쟁에서 초점은 공간 분할적 시각화 문제였다. 칼빈은 이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하신 지혜”⁹⁷⁾이고 “언어에 관해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신 성령님”⁹⁸⁾께서⁹⁹⁾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께서도 말씀으로 사역하셨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청각 주도적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공통점이 있다. 이 말씀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다. 삼위(三位)를 강조해도 말씀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일체가 희생될 수 없고, 일체를 강조해도 말씀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삼위는 희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근거 때문에 칼빈은 교회 존립근거를 말씀에 둔 것이다. 말씀이 희생되면 시각 주도적인 교회를 만든다.

시각 주도적 사유가 위험한 것은 “시각은 선택적”¹⁰⁰⁾이기에 자기 주도적이고, “분류를 사랑”¹⁰¹⁾하기에 인간 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로버

96) 차영배, 「개혁교의학—삼위일체론」, 43, 90, 25–91, 96. 삼위일체론이 기독론과 함께 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성상승배 문제로 이어진다. 이 단성론 역시 시각화에 대한 논쟁이다. 성상승배에 관한 역사적 논쟁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성상파괴(711–775년), 성상승배에 대한 결정과 갈등(775–802년), 다시 성상파괴(814–829년), 다시 복권된 성상(842–856년). John Julius Norwich, *Byzantium : The Early Centuries*, 남경태 옮김, 「비잔티움 연대기 I : 창건과 혼란」(서울 : 바다출판사, 2007), 571–603, 606–32. Julius Norwich, 「비잔티움 연대기 II : 변영과 절정」, 59–88, 108–23.

97) *Inst*(1559)., I. xiii, 7, 129.

98) *Calvin's Commentaries*, XII. Daniel. 4 : 35, 298.

99) 안명준은 칼빈이 지난 이러한 청각 지향적 사유를 높이 평가한다. “칼빈의 성서해석학에 사용된 성령의 조명.” 한국칼빈학회 역음, 「칼빈신학해설」(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97.

100) Rudolf Arnheim, *Visual Thinking*, 김정오 옮김, 「시각적 사고–미술의 인지심리학적 기초」(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39. 다음도 참조 바람. 분류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공간화되며 유혹한다. Georges Vignaux, *Le Démon Du Classement–Penser et Organiser*, 임기대 옮김, 「분류하기의 유혹–생각하기와 조직하기」(서울 : 현대신서, 1999), 9–18, 53–71.

트 웨버는 현대 복음주의를 “대중적 복음주의”¹⁰²⁾라고 말하는데, 대중들은 언제나 “내가 못 본 것을 보여 달라(show me something I haven't seen)”¹⁰³⁾고 주장한다. 김영민은 ‘시간을 공간화시키면 과학적 편리성에 젖고’¹⁰⁴⁾ 대중은 편리성을 따른다는 것을 강조한다. 로티(Richard Rorty)는 이러한 실용적 편리성을 ‘최초 아버지(Primal Father)로부터 해방된 실용주의’¹⁰⁵⁾라고 말한다. ‘우리는 믿고’를 A로, ‘알았습니다’를 B로 치환하면서 다음 논리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frac{\text{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 (\text{요 } 6:69)}{A \times B \quad \quad \quad B \times A}$$

여기서 형식 논리적으로는 $2 \times 4 = 4 \times 2$, $A \times B = B \times A$ 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¹⁰⁶⁾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명히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리를 컴퓨터에 넣고 논리구조를 물어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삶과 우선순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즉, 교회사에서 “믿고 아느냐? 알고 믿느냐?” 하는 논쟁은 아주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다(요 20:29). 이런 의미에서 칼빈이 “하나님을 분할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화하는 것은 죄다.”¹⁰⁷⁾라고

101) *Ibid.*, 278.

102) Robert Webber, *Common Roots*, 홍성국 옮김, 「복음주의란 무엇인가?」(서울 : 생명의말씀사, 1995), 3, 17, 18, 50, 87, 285.

103) Todd Gitlin, *Media Unlimited*, 남재일 옮김, 「무한미디어–미디어 독재와 일상의 종말」(서울 : Human & Books, 2006), 63.

104)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서울 : 까치, 1994), 125.

105) 김동식 옮김, “반(反)권위주의로서의 실용주의,” 김동식 역음, 「로티와 철학과 과학」(서울 : 철학과현실사, 1997), 27.

106) 위 내용은 다음에서 응용한 것이다. Irving M. Copi, *Symbolic Logic* 5th(New York : Macmillan, 1979), 8–31. 여훈근, 「기호 논리학」(서울 : 민영사, 1997), 22–44. 김영진, “기호 논리학”(1984년, 인하대학교 철학강의 안, 미간행물).

107) “*Deo tribuere visibilem formam nefas esse.*” OS. *Inst*(1559)., I. xi,

말한 것은 이 시대에도 중요하다. ‘어떤 형상이든 덧붙이는 것(*forma ulla affingitur*)은 하나님 영광을 훼손한다는 것이 칼빈 원칙(*principium*)’¹⁰⁸⁾이다.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외관적으로 볼 수 있게, 영적인 하나님을 생명 없는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하찮은 나무 조각이나 돌, 혹은 금으로 유사하게 만들었을 때(사 40:18-20, 41:7, 29, 45:9, 46:5-7) 하나님께서 지니신 위엄은 꼴사납고, 불합리하게 지어낸 것에 의해서 더럽혀진다(*fictione foedari*).¹⁰⁹⁾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타락한 본성 때문이다. 칼빈은 이 타락한 본성이 지니는 위험성을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부터 언급하고 있다. ‘인간은 비참한 타락(*miserabilis ruina*) 후에 인간 내부에 비참한 온갖 것(*miseriarum omnium*)이 자리 잡은 죄인’¹¹⁰⁾이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선하심을 숙고(*consideranda Dei bona*)하는 것이 출발점’¹¹¹⁾이다. 인간은 ‘먼저(*prius*)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Dei facem*)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점검’¹¹²⁾하는 것이 경건인데, ‘경건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들음’¹¹³⁾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자기가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그 결과 의로움 자체를 대신하는 공허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를 반신(半神, *semidei*)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육체적 감각기관인 눈¹¹⁴⁾이 기준이 된다.¹¹⁵⁾ 타락 후 이러한 시각 주도적

88. 여기서 ‘tribuo’를 ‘분할해서’라고 번역한 것은 이 어휘는 ‘본래 부족 간에 세금을 분배한다’는 뜻이 있고, 본 연구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108) OS. *Inst*(1559)., I. xi. 88.

109) OS. *Inst*(1559)., I. xi. 89.

110) OS. *Inst*(1559)., I. i. 1, 31.

111) OS. *Inst*(1559)., I. i. 1, 32.

112) OS. *Inst*(1559)., I. i. 2, 32.

113) 안인섭, “칼빈의 경건 사상,” 「역사신학 논총—칼빈과 20세기 교회」 제11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6, 94.

114) 여기서 원문은 “*corporeo sensu*”이다. 문맥적으로 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고 인간 주도적인 사유 때문에 칼빈은 ‘인간에게 속한 생각(*hominum arbitrio*)은 우상을 만드는 시작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문’¹¹⁶⁾하면서 칼빈은 이러한 시각 주도적 본성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2격) 본성은 말하자면, 영원한 우상을 소유한(2격) 공장이다.”¹¹⁷⁾라고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강경립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길들이는 것”¹¹⁸⁾이라고 평가한 것은 적절하다. 브루게만(Brueggemann) 역시 “하나님께서는 무신론보다 우상숭배를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셨다.”¹¹⁹⁾고 말한다.

이러한 시각 주도적 위험성을 직시하면서 칼빈은 “그레고리 교황(1세)이 성령 하나님께 속한 학교(*Spiritus Dei schola*)에서 배웠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¹²⁰⁾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교황을 지지하는 자들이 고함치면서 오직 형상으로만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¹²¹⁾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쉬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가르쳤다’¹²²⁾면 로마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구별되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완전한 존경을 돌리는 것’¹²³⁾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태양과 별들에게 드렸다. 그 후에는 야심(*ambitio*)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탈취(*Dei spoliis*)해서 죽

115) OS. *Inst*(1559)., I. i. 2, 32.

116) OS. *Inst*(1559)., I. xi. 4, 92.

117) “*hominis ingenium perpetuum, ut ita loquar, esse idolorum fabricam.*”

OS. *Inst*(1559)., I. xi. 8, 96.

118) 강경립, “칼빈의 반우상숭배론,” 「칼빈 신학 해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09, 111.

119) Walter Brueggemann, 「구약신학」, 234.

120) OS. *Inst*(1559)., I. xi. 5, 93.

121) “*Quos ergo vocant Papistae idiotas, quorum ruditas solis imaginibus docere sustineat.*” OS. *Inst*(1559)., I. xi. 7, 95.

122) OS. *Inst*(1559)., I. xi. 7, 96.

123) OS. *Inst*(1559)., I. xii. 105.

을 인간을 위해 장식하고, 하찮은 신들이나 죽은 영웅들에게 무차별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 되어 버렸다.¹²⁴⁾

이러한 로마교회에 대해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중세문명은 시각문명이다. 성당은 돌로 된 거대한 책으로 실제로 선전 플래카드와 TV 스크린의 기능을 했다.”¹²⁵⁾고 비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을 아는 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다”¹²⁶⁾(렘 9:24). 그러나 중세 로마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접붙여진 교회를 공간화시키면서 물질화시켰다.

칼빈은 ‘교회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께만 일임해야 된다.’¹²⁷⁾고 말한다. 때문에 칼빈은 교회 표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은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하며, 또 들려져야 한다.”¹²⁸⁾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Dei 2격*)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칼빈은 속격(*2격*)¹²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noster, our*)라는 소유 대명사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속한 인자하심과 거저 주시는 선물(*Dei benignitate ac gratuito munere*)로 주셔서 우리 것이 된

124) OS. *Inst(1559).*, I. xii, 3, 108.

125) Umberto Eco, *Über Gott und die Welt*, 조형준 옮김,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서울 : 새물결, 1997), 42. 다음도 참조 바람. Maggie Jackson, *Distracted : The Erosion of Attention and The Coming Dark Age*, 16, 225.

126) “*Deus iubet in sui solius cognitione gloriari.*” OS. *Inst(1559).*, I. xiii, 13, 127.

127) OS. *Inst(1559).*, IV. i, 2, 3-4.

128) “*Dei verbum sincere praedicari atque audiri.*” OS. *Inst(1559).*, IV. i, 9, 13.

129) 「기독교 강요」에 속격이 사용된 횟수는 1권이 55회, 2권이 616회, 3권이 1,073회, 4권이 622회, 총 2,844회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Herman J. Selderhuis Ed. Calvini Opera Database 1.0, Vol. 47. *Commentarius Ioannis : Congregation divinitate Jesus Christ*(Apeldoorn : Instituut voor Reformatieonderzoek, 2005)를 사용해서 수동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CO. Database 1.0, Vol.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한다.

다.”¹³⁰⁾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주권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부터 일관되게 주장한다. 「기독교 강요」 1권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지식에 관하여”(*De Cognitione dei Creatoris*)¹³¹⁾라고 정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Dei creatoris*)은 속격(2격)이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께 속한 학교”(*Spiritus Dei schola*)¹³²⁾라고 말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요 6:45)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은총은 하나님께 속한 것(*Dei gratiam*)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다는 뜻¹³³⁾이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요 6:44)¹³⁴⁾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있어서 최고 선생님”¹³⁵⁾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양호도 ‘하나님께 배우는 학생’¹³⁶⁾이 되고자 했던

130) OS. *Inst(1559).*, II. v, 14, 314. 이 부분에 대한 문맥은 칼빈이 ‘행위와 은총’을 비교하면서 로마교회가 주장하는 행위를 비판한 부분이다. 이 개념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작용인, 목적인, 원리, 원인, 요소’를 운동과 관련해서 파악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아リスト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사용한 의지(voluntas)라는 개념과 직결되는데, 수의적(隨意的, voluntarium)이라고 번역된다. 이 의미는 이성적으로 욕구 능력으로서 의지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된 것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감각적 욕구를 지닌 동물이나 어린아이에게도 속하는 것이라고 토마스는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적 작용”(*actio voluntaria*)이 되고, ‘자기로부터의 운동’으로 세분화된다. Thomas Aquinas, *De principiis naturae ad fratrem sylvestrum*, 김 을 옮김, 「자연의 원리들」(서울 : 철학과현실사, 2005), 155-168.

131) OS. *Inst(1559).*, I. i, 31. 1) Ford Lewis Battles는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로 번역을 했고, 2) Henry Beveridge는 “Of The Knowledge Of God The Creator”로 번역을 했다.

132) OS. *Inst(1559).*, I. xi, 5, 93.

133) OS. *Inst(1559).*, II. iii, 10, 285.

134) OS. *Inst(1559).*, II. iii, 10, 286.

135)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Holy Gospel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John*,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Grand Rapids : Baker, 1998), XVIII, John. 12:12, 17. 이하에서는 Calvin's Commentaries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러한 칼빈 사유를 높이 평가한다. 그 배움은 전심으로(*nempe ut toto cord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배움이다.¹³⁷⁾ 이 배움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¹³⁸⁾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중세 로마교회는 청각 지향적으로 하나님 말씀듣기보다는 시각 주도적이 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면서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겔 3:17)는¹³⁹⁾ 말씀들음도 잊어버렸다. 이런 중세교회에 대해서 칼빈은 “제사장 입”(*os sacerdotis*)¹⁴⁰⁾이라는 어휘와 “제사장 입술”(*labia sacerdotis*)¹⁴¹⁾이라는 청각 지향적 용어를 사용하여 중세 로마교회가 시작 주도적으로 나아간 것을 지적한다.

2) 말씀듣는 믿음과 교회

칼빈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이지 경건한 무지가 아니다.’¹⁴²⁾고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지식은 숫자적 이성이나 철학화된 로고스적 이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rational)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유리수’라는 용어로 쓰인다. 수학을 지칭한 그리스어 ‘마스마티코스’(*μαθητικος*)는 ‘배움’이라는 뜻¹⁴³⁾

136) 이양호, “칼빈의 해석론,” 「김광식 회갑논문집-해석학과 토착화」(서울 : 한글, 1998), 121.

137) CO. Database 1.0, Vol. 47, *Commentarius Ioannis : Congregation divinitate Jesus Christ*, 282-83(요 12:13).

13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 McNeill, ed., Ford Lewis Battles tr.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Inst*(1559)., II. ii. 20, 178. 이 부분은 칼빈 원문에는 없고, 이 영역본에서 소제목 붙인 것을 인용한 것이다.

139) CO. Database 1.0, Vol. 40. *Prael. Ezechielis*, 90-91.

140) OS. *Inst*(1559)., IV. i. 5, 8.

141) OS. *Inst*(1559)., IV. viii. 2, 135.

142) OS. *Inst*(1559)., III. ii. 2, 10. III. ii. 7, 16.

이고, ‘컴퓨터’(computer)라는 말은 계산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철학’(philosophy)이라는 말과 ‘수학’(mathematics)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수학자 피타고라스인데, 그는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수학하면서 신비주의적인 비교(秘教)를 경험했고, 오르페우스교와 디오니소스교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과 플로티누스를 거치고, 신플라톤적인 마법적(magical) 세계관과 역시 맞닿아 있다.¹⁴⁴⁾ 칼빈은 이러한 피타고라스를 빌어서 로마교회 중요 지도자였던 “롬바르두스(Lombardus)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봄바르두스’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거스틴도 잘못 이해했고, 성경도 잘못 이해했다.”¹⁴⁵⁾고 비판한다. 피터 게이가 정확히 평가한 것처럼 중세는 ‘시간이란 측정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측정하려고 하면서 변질되었다.’¹⁴⁶⁾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듣고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까지도 수학적 공간처럼 측정하고 증명하여 보려고 한 것이 타락한 원인이다. 칼빈은 이러한 사유를 탈피하기 위해서 요한복음¹⁴⁷⁾ 1:1 주석에서 “로고

143) Amir D. Aczel, *Mystery of Aleph*, 신현용 · 송영조 옮김, 「무한의 신비-수학, 철학 종교의 만남」(서울 : 송산, 2002), 24. W. W. Skeat,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English*(Oxford : Clarendon Press, 1999), 366, 500. 박이문, 「우리말 철학사전」(서울 : 지식산업사, 2001), 107-17.

144) John Strohmeier & Peter Westbrook, *Divine Harmony : The and teachings of Pythagoras*, 류연훈 옮김, 「피타고라스를 말하다」(서울 : 통크, 2005), 12, 14, 62, 28-48, 82, 144.; Frank Thilly, *A History of Philosophy 3rd ed.*, (New York :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61), 13-16, 27-31.; Samuel Enoch Stumpf & James Fieser, *Socrates to Sartre and Beyond-A History of Philosophy*, 이광래 옮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서울 : 열린책들, 2006), 28-33.

145) OS. *Inst*(1559)., III. xv. 7, 246. 「기독교 강요」에서 ‘롬바르두스’가 언급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CO. Database 1.0으로 수동검색한 것이다. II. I. 9, II. ii. 6, II. iii. 5, II. iii. 7, II. iii. 13, III. ii. 43, III. iv. 23, III. iv. 39, III. xv. 17, IV. xvii. 12, IV. xvii. 13.

146) Peter Gay, *The Enlightenment : An Interpretation-The Rise of Modern Paganism*(New York : W. W. Norton, 1966), 245. 시간측정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도 참조 바람. G. J. Whitrow, *What is Time?*(London : Camelot Press, 1972), 68-82.

스를 헬라어로 정의하면 숫자적 이성(ratio)¹⁴⁸⁾ 또는 계산함이라는 뜻이다.”¹⁴⁹⁾라고 정확하게 정의(stipulative definition)한다. 또한 라틴어 성경이 로고스(τὸν λόγον)를 진술적 말씀(Verbum)으로 번역한 것은 놀랍다고 하면서 청각적 말씀(sermo)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칼빈이 말한 이러한 자기 주도적 진술인 그리스 사유는 현대 철학자 거스리(W. K. C. Guthrie)에 와서 정확하게 확인된다. ‘그리스인들에게 신(Θεός)은 주로 서술적 기능을 지닌다. 플라톤과 그리스인들은 이 데오스(Θεός)를 이렇게 말했다. 자연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들이 감화를 받거나 큰 힘을 경험했을 때, “능력은 신이다.” 혹은 “승리(Victory)는 신이다.” 혹은 “사랑은 신이다.”라고 그리스인들은 자기 주체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¹⁵⁰⁾했다. 칼빈은 청각적 말씀(sermo)이라는 어휘를 1:1에서 10회를 사용¹⁵¹⁾하고 있다. 리차드는 칼빈 주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삼위일체 두 번째 격(格)이 곧

147) 신약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어휘는 동사 ‘*pisteuo*’로 248회, 명사 ‘*pistis*’가 244회로 총 492회가 사용된다. 그중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동사로만 100회가 사용되고 있다. Tholalf Gilbrant ed., *The Complete Biblical Library*(Springfield : The Complete Biblical Library, 1991), “*pisteuo*” and “*pistis*”.

148) ‘숫자적 이성’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은 칼빈 문집에서도 그렇고, 가톨릭대학교출판부에서 발행한 「라틴-한글사전」에서 “ratio” 항목에서도 1) “계산, 셈, 해아림”이라고 번역하고, 비슷한 관련 어휘로 17)번까지 번역하고 18)번에서 “이성”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149) “*Est quidem Graesis ἀλόγος et definitio, et ratio, et supputatio.*” CO. Database 1.0, Vol. 47. Commentarius Ioannis, 1.

150) “τὸν λόγον transferrent Verbum” Ibid., 3. 여기서 “Verbum”을 ‘서술적 말씀’으로 번역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론 개념은 고대 그리스철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철학적 개념을 신학이 차용할 때 아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W. K. C. Guthrie, *The Greek Philosophers-From Thales to Aristotle*(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5), 10.

151) CO. Database 1.0, Vol. 47. Commentarius Ioannis, 1-3.

하나님 말씀(speech)”¹⁵²⁾이라고 청각 주도적 어휘로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듣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한다.¹⁵³⁾ ‘진정한 성령신학자’¹⁵⁴⁾인 칼빈이 원했던 믿음을 ‘성령님께서 성경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듣는·믿음이지, 자기 주도적 종교 경험이 아니다.’¹⁵⁵⁾라고 니젤이 평가한 것 역시 정당하다. 물론 칼빈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근거이기 때문이다.’¹⁵⁶⁾ 그 이유는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에 남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게 되기”¹⁵⁷⁾ 때문에 믿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은 감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약속에만 집중하는 것이다.”¹⁵⁸⁾ 이러한 말씀들은 청각 주도적 인식론 때문에 칼빈은 타락 이후 자기를 자랑하려는 시각 주도적 사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본래 위선으로 향해 있기에(hypocrisim natura propensi), 공허한 의을 바라보는(specio)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때문’¹⁵⁹⁾이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창한 보여 주기식 의식(儀式)이 있는 곳에서는 진정한 마음(cor/heart)을 찾아보기 힘들다.”¹⁶⁰⁾ 이러한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

152) L.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영성」(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6), 203.

153) “audire passim accipitur pro credere.” OS. Inst(1559)., III. ii. 6, 14.

154) Choi Yoon Bae,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plogie bij martin en Johannes Calvijn”(Dr. Theol., Leiden : J. J. Groen en Zoon, 1996), 221.

155) Emile Doumergue, *Le Caractère de Calvin*, 이오갑 옮김,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5), 76.

156) OS. Inst(1559)., III. ii. 6, 14.

157) “Tolle igitur verbum, et nulla iam restabit fides.” OS. Inst(1559)., III. iii. 6, 14.

158) “aures arrigere, oculos claudere hoc est, uni promissioni intentam esse.” OS. Inst(1559)., III. xiii. 4, 219.

159) OS. Inst(1559)., I. i. 2, 32.

160) “dum ubique magna est ceremonialis ostentatio, rara autem cordis synceritas” OS. Inst(1559)., I. ii. 2, 37.

안에 본성적으로 꼭 달라붙어 있기”¹⁶¹⁾에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교활하게 평범한 대중(*simplicem populum*)을 속이기 위해서 시각 주도적인 교묘한 술책을 고안해 내어서는 안 된다.”¹⁶²⁾ 이러한 교묘한 술책에 사로잡히게 되면 “앞에서 말한 대로(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이 제시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무분별하게 꾸며낸 대로 상상한다.”¹⁶³⁾ 그 결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 낸 허구와 망상으로 예배드리게 된다.”¹⁶⁴⁾ 이러한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억은 본래부터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시각화되어 ‘인간은 공허한 우상을 형상화(*inane idolum fingend*)하여 하나님을 부인한다.’¹⁶⁵⁾ 이러한 시각 주도적 우상은 ‘하나님을 미신(*superstition*)이나 요물스런 환상(*spectrum*)이나 환영(幻影 : *phantasma*)처럼 인식하는 행위”¹⁶⁶⁾이다. 시각 주도적 ‘종교적 외형(*religionis specie*)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감을 얻으려는 행위는 외식”¹⁶⁷⁾이다. 이것은 맥그라스(McGrath)가 중세교회는 은혜를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과 인간 틈새를 이어주는 다리 정도로 생각했다”¹⁶⁸⁾고 평가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외식적 믿음은 자기들(중세 로마교회)이 어느 정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간적 중간(medium) 개념으로 인식하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공간 분할적 ‘사이’ 개념으로써 그리스도를 중재 할 능력이 있는 중간위격(middle Person)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161) “nobis omnibus naturaliter haerere” OS. *Inst*(1559)., III. xii. 5, 212.

162) OS. *Inst*(1559)., I. iii. 2, 38–39.

163) “Itaque non apprehendunt qualē se offert, sed qualē pro sua temeritate fabricat sunt, imaginantur.” OS. *Inst*(1559)., I. iv. 1, 41.

164) OS. *Inst*(1559)., I. iv. 1, 41.

165) OS. *Inst*(1559)., I. iv. 2, 42.

166) OS. *Inst*(1559)., I. iv. 3, 42.

167) OS. *Inst*(1559)., I. iv. 4, 43–44.

168)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An Introduction* 3rd ed., 103.

그리스도를 공간적 중간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행위개념이 들어오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The Mediator : The가 있다.)가 아니라 교회와 사제들이 중간에 끼어들 수 있고, 행위와 은혜가 반반씩(1/2) 공간적으로 섞일 수밖에 없는 중보(Mediator : The가 없다.) 개념이다.¹⁶⁹⁾ 이러한 공간적 분할은 죄에 대해서도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누게 된다. 칼빈은 ‘모든 죄는 하나님 은혜로 용서 받은 것이기에, 용서 받을 수 있는 소죄(小罪 : *peccatum veniale*)와 용서 받지 못할 대죄(大罪 : *peccati mors*)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¹⁷⁰⁾고 말한다. 죄를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시각적으로 분할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¹⁷¹⁾ 이것은 로마교회가 죄를 공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연옥을 만들고, 죄를 자기들 마음대로 면죄해 주는 행위 구원과 연결시켜 비판한 것이다. 연옥은 ‘중세교회에서 사람을 측정’¹⁷²⁾하면서 ‘교회에는 부를 증가’¹⁷³⁾시키는 역할을 해 준 시각 주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인식은 논증(demonstration)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169) 영화를 ‘매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폴리 신학교 로버트 존스톤은 영화를 신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면서 영화를 통해서 건전한 형상신학이 구현되기를 원한다면 로마 가톨릭 영화 연출가에게 눈을 돌려서 아퀴나스가 원했던 것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에서 폴 틸리히 신학도 유용하다고 말한다. Robert K. Johnston, *Reel Spirituality :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옮김, 「영화와 영성」(서울 : IVP, 2003), 111–13, 125, 89–147. 다음도 참조 바람. 텔레비전을 교회가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을 이야기한다. William F. Fore, *Mythmakers—Gospel, Culture, and the Media*, 신경해 · 홍경원 옮김, 「매스미디어 시대의 복음과 문화」(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2000), 115–51.

170) OS. *Inst*(1559)., II. viii. 58–59, 396–98. & III. vii. 28, 117–18.

171) 리쾨르는 죄를 세분화해서 공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다. Paul Ricoeur, *La Symbolique du mal*,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2), X, 37–40, 45–51, 57–58, 60–63, 79–89, 113–21, 140–50.

172) Anton Zeilinger, *Einstiens Schleier*, 전대호 옮김, 「아인슈타인의 베일—양자물리학의 새로운 세계」(서울 : 승산, 2007), 175.

173) Peter R. L. Brown, 「성인승배」, 111–15.

따라서 자연신학은 일종의 과학이다.”¹⁷⁴⁾ 과학(science)은 그 어원(sceadan)이 ‘쪼개다, 분리하다’(to divide, separate)¹⁷⁵⁾라는 의미로서 공간 분할하여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일종의 과학인 자연신학과 과학·기술·수학이 결합되어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이 시대적 의미를 개혁신학은 말씀으로 이러한 사유를 재평가하며 긴장해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과학적 이성으로 신학과 믿음까지도 증명하려 했던 중세교회를 비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참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의인(義人)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전가(translatus, 사 53 : 12)¹⁷⁶⁾ 시키셨다.¹⁷⁷⁾ 그리스도께 죄가 전가되었다는 이 말은 공간이동처럼 전가된 것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분할되어서 옮겨진 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전가된 것이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그리스도께 전가된 죄가 어느 정도, 혹은 공간적으로 옮겨졌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결과는 행위 구원으로 이어지고, 이 행위 구원은 시각화되어 연옥교리와 성인승배로 이어진다. 성인승배 사상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산 자들이 사는 터전과 죽은 자들이 있는 묘지들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눈에 잘 띠는 장소와 연관되었다.¹⁷⁸⁾ 이러한 시각 주도적 공간 분할성을 근거로 베트하임이 “중세 영혼 공간(soul-space)에서 요체는 진정으로 연옥이었다”¹⁷⁹⁾

174) Diogenes Allen, *Philosophy for Understanding Theology*, 정재현 옮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6), 228.

175) W. W. Skeat,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English*, (Great Llare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shed”, <http://www.etymonline.com/>.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BS에서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더 자세히 보충해서 2008년 4월 21일 방영된 다큐 프라임 1부에서 “명사로 보는 서양인 동사로 보는 동양인”에서도 과학(science)에 대한 어원을 “sceadan”으로 그 의미는 “분리하다”(to divide, separate)라고 설명하면서 과학과 명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176) 칼빈이 여기서 과거분사를 사용한 것은 시간의식에서 아주 중요하다.

177) OS. *Inst*(1559)., II. xvi. 5, 489.

178) Peter R. L. Brown, 「성인승배」, 76–77.

179) Margaret Wertheim, *The Pearly Gates of Cyberspace*, 64.

고 말하면서 사이버 공간개념과 유사하다고 평가한 것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평가이다. 피터 게이 역시 ‘신곡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인간은 죽은 뒤에도 세분화되어 서열에 따라 지정된 자리를 차지했다’¹⁸⁰⁾고 평가한다. 이처럼 중세 로마교회는 잘 짜여진 공간 속에서 믿음까지도 분할시키고 계층화시키면서 타락했다. 결국 이러한 분리적이고 공간적인 계층화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깨닫고, ‘칼빈은 서열화(계층화)된 믿음을 거부한 것’¹⁸¹⁾이라고 김영한이 평가한 것 역시 중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칼빈 교회론에 대한 본질을 말씀드리는 청각 주도적 쉐마로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시각 주도적 사유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위험한가?” 하는 것도 더불어 분석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TV,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들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우리 의식과 사유를 시각 주도적으로 재조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러한 시각 주도적인 사유가 교황을 중심으로 둥친 중세교회와 현 시대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와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개혁교회에 경종이 되는 내용이다. 특히 중세교회 연옥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유사하다는 이야기에 유념해야 한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초기부터 면죄부가 출현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각화는 자기 주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앙에서 본질을 벗어나 있다. 시각 주도적 사유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이러한 사유는 프로타고拉斯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만물

180) Peter Gay, *The Enlightenment : An Interpretation—The Rise of Modern Paganism*, 243.

181) 김영한, 「한국기독교 문화신학」(서울 : 성광문화사, 1992), 175.

에서 척도'(Homo mensura)가 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전통은 이러한 시각 주도적 위험성을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청각 지향적 사유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사유는 교회에서 본질적인 사유이다. 교회가 이 말씀듣고 전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중세교회처럼 타락한다. IT산업이 발전함으로 사이버 공간 사용이 극대화되어 시각 주도적 사유와 공존하는 현대 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이 위험성을 직시하고 다시 말씀들은 그 순수를 회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수학이 결합하여 점점 더 시각 지향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 많은 교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를 중계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화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 설교자 모습과 강단 배경이 우아하게 보이기(show)를 원한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리신 피를 상징하는 붉은 휘장은 사라졌다. 그 공간에 다른 것들, 편안하고 우아한 것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제 주님께서 피 훌리신 상징보다는 편안한 것들이 강단 위에 있다. 이 부분은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많은 교회들이 비디오와 컴퓨터 기계로 성경말씀과 찬송가를 화면에 비춰 주기 때문에 성경과 찬송을 펼칠 필요도 없고, 성경 찬송 없이 교회에 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교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같이 찾고, 함께 낭송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들은 쉐마적 전통을 회복했으면 한다. 또한 설교시간에 몇 배 혹은 몇십 배 확대된 설교자 자기 얼굴을 비추는 것보다는 성경말씀을 크게 비추고 함께 읽으면서 청각 주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듣고·들려주는 쉐마 설교를 했으면 한다.

셋째, 현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TV, 컴퓨터라는 기계에 의해서 시각 주도적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세대들이다. 어린아이들은 대상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미 TV와 컴퓨-

터에 의해서 의식이 길들여져 있고, 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된 것이다. 지금 의학계에서는 2세 미만 아이들이 TV를 혼자 30분 이상 보게 되면 자폐아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상식이고, ADHD(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증후군)로 간다는 보고가 현실화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만 2세(한국 나이로는 3세) 영아부 아이들에게 TV를 보여 주며 예배드리는 것은 금하고, 최소한 이 위험성을 교육하면서 예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TV와 컴퓨터로 인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엄마와 눈길 마주치기를 거부하는 준자폐아처럼 자라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돌밭과 가시밭에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다. 이제 교회는 다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앓고 찬송과 말씀을 들려주는 청각 지향적 쉐마 교육을 뱃속, 태 속부터 긴급하게 시작해야 한다. 이 길이 개혁교회와 한국교회가 살 길이다.

참고문헌

1. 칼빈 1차 자료

Institutionis Christianae Religionis 1559 libros I et II. Joannis Calvinii
Opera Selecta, Petrus Barth Guilemmus Niesel, ed., München :
Chr. Kaiser Verlag 1926-52.
Selderhuis, Herman J. Ed. Calvin Opera Database 1.0, Vol. 47.
Commentarius Ioannis : Congregatione divinitate Jesus Christ.
Apeldoorn : Instituut voor Reformatieonderzoek, 2005.

2. 칼빈 1차 자료 번역본

Calvin, John. *Commentary On The Holy Gospel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John*.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Grand Rapids : Baker, 1998.

- _____. *Commentary On The Prophet Daniel*. The Calvin Translation Society. Grand Rapids : Baker, 1998.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 McNeill, ed., Ford Lewis Battles tr.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3. 아리스토텔레스 1차 자료

Ross, W. D. *Recognovitor. Aristotelis Physica*.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0.

4. 국내서적 및 논문

- 강경립. “칼빈의 반우상승배론.” 「칼빈 신학 해설」.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김동식. “반(反)권위주의로서의 실용주의.” 「로티와 철학과 과학」. 김동식 역음. 서울 : 철학과현실사, 1997.
-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 서울 : 까치, 1994.
- 김영한.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례서원, 2001.
- 김학수. “과학문화의 현황과 도전.” 「과학문화의 이해-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서울 : 일진사, 2000.
-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서울 : 소명출판, 2001.
- 맑스코뮤날레 역음.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1」. 서울 : 문화과학사, 2003.
- _____.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2」. 서울 : 문화과학사, 2003.
- 박이문. 「우리말 철학사전」. 서울 : 지식산업사, 2001.
- 신방흔. 「시각예술과 언어철학—후기 해체주의와 예술의 인터텍스트」. 서울 : 생각의 나무, 2001.
- 안명준. “칼빈의 성서해석학에 사용된 성령의 조명.” 「칼빈신학해설」. 한국칼빈 학회 역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안인섭. “칼빈의 경건 사상.” 「역사신학 논총—칼빈과 20세기 교회」 제11집. 서울 : 생명의 말씀사, 2006.
- 여훈근. 「기호 논리학」. 서울 : 민영사, 1997.
- 윤천석. “속격(2격)을 통해서 본 칼빈 신학이해—「기독교 강요」 속격 ‘Dei’에 대

- 한 번역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제10집. 2008년. 봄 여름호.
- 이수열. 「우리말 바로쓰기」. 서울 : 현암사, 2002.
- 이양호. “칼빈의 해석론.” 「김광식 회갑논문집-해석학과 토착화」. 서울 : 한들, 1998.
- 이오녀. 「우리말 바로쓰기 1」. 서울 : 한길사, 2003.
- 이재오. 「영한비판사전」. 서울 : 궁리, 2005.
- 이재하. “루터의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fides formata caritate*)’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50차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2007년 11월 9일 인쇄본.
- 이진경. 「노마디즘 1-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서울 : Humanist, 2002.
- _____.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 푸른 숲, 2002.
- 장영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서울 : 서광사, 2000.
- 정기철. 「시간문제와 종말론—시간의 철학과 시간의 신학」. 서울 : 한들출판사, 2000.
- 정성구. 「칼빈主義 思想大系」.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95.
- 차영배. 「개혁교의학-삼위일체론」.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86.
- 최경봉. “관형격 구성을 구조와 구조의 문제.” 「국어의 격과 조사—한국어학회」. 서울 : 월인, 1999.
- 황수영. 「물질과 기억-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서울 : 그린비, 2006.

5. 외국서적

- Barnes, Jonathan ed.,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2nd*,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Boman, Thorleif. *Hebrew Thought Compared With Greek*, Jules L. Moreau tr., New York : Norton, 1970.
- Cargal, Timothy B. *Hearing a Film, Seeing a Sermon—Preaching and Popular Movies*.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 Copi, Irving M. *Symbolic Logic 5th*. New York : Macmillan, 1979.

- Craig, William Lane. *Time and Eternity—Exploring God's Relationship to Time*. Illinois : Crossway Books, 2001.
- DeVries, Simon J.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 Eerdmans, 1975.
- Fraser, J. T. ed., *The Voice of Time*. New York : George Braziller, 1996.
- Gay, Peter. *The Enlightenment : An Interpretation—The Rise of Modern Paganism*. New York : W. W. Norton, 1966.
- Guthrie, W. K. C. *The Greek Philosophers—From Thales to Aristotl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5.
- Hospers, John. *An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Revised*. ed., London : The Gresham Press, 1973.
- Jackson, Maggie *Distracted : The Erosion of Attention and The Coming Dark Age*. New York : Prometheus Books, 2008.
- Jenks, Chris. ed., *Visual Culture*. London : Routledge, 2002.
- Kaiser, Jr. Walter C.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 Zondervan, 1978.
- Ong, Walter J. *Orality and Literacy :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 Routledge, 2002.
- Stafford, Tom and Webb, Matt. *Mind Hacks—Tips & Tools for Using Your Brain*. Cambridge : O'REILLY, 2005.
- Thilly, Frank. *A History of Philosophy 3rd ed.*, New York :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61.
- Wertheim, Margaret. *The Pearly Gates of Cyberspace—A History of Space From Dante to the Internet*. New York : Norton, 1999.
- Whitrow, G. J. *What is Time?* London : Camelot Press, 1972.

6. 번역서적

- Aczel, Amir D. *Mystery of Aleph*. 「무한의 신비—수학, 철학 종교의 만남」. 신현용 · 송영조 옮김. 서울 : 승산, 2002.
- Allen, Diogenes. *Philosophy for Understanding Theology*. 「신학을 이해하

- 기 위한 철학」. 정재현 옮김.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6.
- Aquinas, Thomas. *De principiis naturae ad fratrem sylvestrum*. 「자연의 원리들」. 김 을 옮김. 서울 : 철학과현실사, 2005.
- Arnheim, Rudolf. *Visual Thinking*. 「시각적 사고—미술의 인지심리학적 기초」. 김정오 옮김.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Bassham, Gregory and Bronson, Eric. ed., *The Lord of the Rings and Philosophy : One Book to Rule Them All*. 「철학으로 반지의 제왕 읽기」. 최연순 옮김. 서울 : 이룸, 2003.
- Brown, Peter R. L. *The Cult of the Saints :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성인숭배」. 정기문 옮김. 서울 : 새물결, 2002.
- Brueggemann, Walt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Testimony, Dispute, Advocacy)*. 「구약신학」. 류호준 · 류호영 옮김. 서울 : CLC, 2003.
- Christian von Baeyer, Hans. *INFORMATION : the New Language of Science*.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 전대호 옮김. 서울 : 승산, 2007.
- Coggi, Giacomo Dal Sasso-Roberto. ed., *Compendio della Somma Theologica di San Tommaso d'Aquino*.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이재룡 · 아동익 · 조규만 옮김. 서울 : 가톨릭대학출판부, 1993.
- Copleston, Frederick. *A History of Philosophy : Mediaeval Philosophy—Augustine to Scotus*. 「중세철학사」. 박영도 옮김. 서울 : 서광사, 1988.
- Cox, Harvey. *The Secular City—Secular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세속도시」. 구덕관 외 옮김.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Deleuze, Gilles. *Différence et Répétition*. 「차이와 반복」. 김삼환 옮김. 서울 : 민음사, 1968.
-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Mille Plateaux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서울 : 새물결, 2001.
- Doumergue, Emile. *Le Caractère de Calvin*.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

- 오갑 옮김.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5.
- Dunn, James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바울 신학」. 박문재 옮김. 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3.
- Dyer-Witheford, Nick. *Cyber-Marx : Cycle and Circuits of Struggle in High-Technology capitalism*. 「사이버 맑스-첨단기술 자본주의에 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신승철·이현 옮김. 서울 : 이후, 2003.
- Eco, Umberto. *Über Gott und die Welt*. 「포스트모던인가 새로운 중세인가」. 조형준 옮김. 서울 : 새물결, 1997.
- Ellul, Jacques.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뒤틀려진 기독교」. 자크 엘루번역위원회. 서울 : 대장간, 1998.
- Enoch Stumpf, Samuel & Fieser, James. *Socrates to Sartre and Beyond—A History of Philosophy*.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이광래 옮김. 서울 : 열린책들, 2006.
- Fishwick, Marshall W. *Popular Culture : Cavespace to Cyberspace*. 「대중의 문화사—동굴에서 태어나 사이버 공간으로 걸어나오다」. 황보종우 옮김. 서울 : 청아출판사, 2005.
- Flaxman, Gregory. ed., *The Brain is the Screen*. 「뇌는 스크린이다. 드檄즈 와 영화철학」. 박성수 옮김. 서울 : 이소, 2002.
- Fore, William F. *Mythmakers—Gospel, Culture, and the Media*. 「매스미디어 시대의 복음과 문화」. 신경혜·홍경원 옮김.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0.
- Giddens, Anthony.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포스트 모더니티」. 이윤희·이현희 옮김. 서울 : 한국사회학연구소, 1991.
- Gitlin, Todd. *Media Unlimited*. 「무한미디어—미디어 독재와 일상의 종말」. 남재일 옮김. 서울 : Human&Books, 2006.
- Greene, Brian. *The Fabric of The Cosmos*. 「우주의 구조—시간과 공간, 그 근원을 찾아서」. 서울 : 승산, 2006.
- Hawking, Stephen W. *A Brief History of Time—From the Big Bang to Black Holes*. 「시간의 역사」. 현정준 옮김. 서울 : 삼성아이(dea), 1988.

- Johnston, Robert. K. *Reel Spirituality :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영화와 영성」. 전의우 옮김. 서울 : IVP, 2003.
- Julius Norwich, John. *Byzantium : The Early Centuries*. 「비잔티움 연대기 I : 창건과 혼란」. 남경태 옮김. 서울 : 바다출판사, 2007.
- _____. *Byzantium : The Early Centuries*. 「비잔티움 연대기 II : 번영과 절정」. 남경태 옮김. 서울 : 바다출판사, 2007.
- Le Goff, Jacques. *La naissance du Pugatoire*. 「연옥의 탄생」. 최애리 옮김.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3.
- Levy, Pierre. *L'intelligence collective—Pour une anthropologie de cyberspace*. 「집단지성—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권수경 옮김.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2.
- Masumi, Brian. *A User's Guide to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 Deviation from Deleuze and Guattari*. 「천개의 고원 사용자 가이드」. 조현일 옮김. 서울 : [en : ford], 2005.
- McDannell, Colleen and Lang, Bernhard. *Heaven : A History*. 「천국의 역사」. 고진욱 옮김. 서울 : 동연, 1998.
- McGrath, Alister E. *Reformation Thought—An Introduction 3rd ed*. MA : Blackwell, 1999.
- Millard, Erickson J. *Christian Theology*. 「복음주의 조직신학」. 신경수 옮김. 서울 :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7.
- Reichenbach, Hans. *The Philosophy of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의 철학」. 이정우 옮김. 서울 : 서광사, 1986.
- Richard, L. Joseph.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칼빈의 영성」.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 기독교문화협회, 1986.
- Ricoeur, Paul. *La Symbolique du mal*. 「악의 상징」. 양명수 옮김.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2.
- _____. *Temps et récit III—Le temps raconté*. 「시간과 이야기 3」. 김한식 옮김.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04.
- Rifkin, Jeremy. *The Age of Access*. 「소유의 종말」. 이희재 옮김. 서울 : 민음사, 2001.

- Roszak, Theodore. *The Cult of Information*. 「정보의 숭배」. 정주현·정연식 옮김. 서울 : 현대미학사, 2005.
- Rubenstein, Richard E. *Aristotle's Children*.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들」. 유원기 옮김. 서울 : 민음사, 2004.
- Strohmeier, John & Westbrook, Peter. *Divine Harmony : The and teachings of Pythagoras*. 「피타고라스를 말하다」. 류연훈 옮김. 서울 : 풍크, 2005.
- Turner, Alice K. *The History of Hell*. 「지옥의 역사 I」. 이찬수 옮김. 서울 : 동연, 1998.
- _____. *The History of Hell*. 「지옥의 역사 II」. 이찬수 옮김. 서울 : 동연, 1998.
- Van Groningen, Gerard.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구약의 메시야 사상」. 유호준·류재원 옮김.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Vignaux, Georges. *Le Démon Du Classenent-Penser et Organiser*. 「분류하기의 유혹-생각하기와 조직하기」. 임기대 옮김. 서울 : 현대신서, 1999.
- Walter Wolf, Hans.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옮김. 서울 : 분도출판사, 1991.
- Webber, Robert. *Common Roots*.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홍성국 옮김.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5.
- Yeffeth, Glenn. ed., *Talking the Red Pill—What is the matrix*, 「우리는 메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메트릭스의 철학, 과학」. 이수영·민병직 옮김. 서울 : 굿모닝 미디어, 2003.
- Zeilinger, Anton. *Einstiens Schleier*. 「아인슈타인의 베일—양자물리학의 새로운 세계」. 전대호 옮김. 서울 : 승산, 2007.
- Zwart, P. J. *About Time—A Philosophical Inquiry into the Origin and Nature of Time*. 「시간론」. 권의무 옮김.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7. 사전
- Borchert Donald M., 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IV. 2006.
_____. *Encyclopedia of Philosophy*. VI. 2006.
- Brown, Colin Ed.,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II*. Grand Rapids : Zondervan, 1986.
- Skeat, W. W.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English*. Oxford : Clarendon Press, 1999.
- Tholalf Gilbrant ed., *The Complete Biblical Library*. Springfield : The Complete Biblical Library, 1991.
8. 신문 및 잡지
- 김은홍, “로마 가톨릭 [교회론 문답] 분석” 「소리」 2007년 7~8월호.
“교황 : 가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 「동아일보」 2007년 7월 12일, A2면.
“디지털 정보 횡수…… 新중세 암흑기 올 수도,” 「동아일보」 2008년 6월 21일자, A6면.
“반지의 제왕,” 「조선일보」 2003년 1월 24일자, D1면.
“인간-기계 경계…… 新인류 정체성 찾기—인문학 뉴 트렌드 ‘포스트 휴먼 인문학(3)’,” 「동아일보」 2008년 3월 19일자, A20면.
9. 학위논문
- 윤천석. “칼빈 신학에 있어서 교회 본질 이해,” Ph. D. 평택대학교, 2007.
Yoon Chun Suk, “Ministry Strategy In a Cyber Age Change From visual Education To Auditory One,” Dr. Min. Gordon Conwell South Hamilton : 2003.
- Choi Yoon Bae,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plogie bij martin en Johannes Calvijn,” Dr. Theol., Leiden : J. J. Groen en Zoon, 1996.
10. 기타자료
- Wayne E. Goodwin, *Leadership in a Time of Global Change : Principle*

and Practices, 평택대학교 주최 전국신학지도자 초청 학술세미나

강의안. 서울 : 신라호텔, 2000년 2월 17일.

[http://www.etymonline.com/.](http://www.etymonline.com/)

6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 아카데미에 관한 연구¹⁾

박경수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1. 서 론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의 신학과 예전 전반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불러왔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구원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공덕 신학을 전개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인간의 공덕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자들의 잉여공로 사상에 근거한 면죄부 판매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괴기스러운 것에 불과했다.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표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justification through faith by grace)라는 선언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주최한 연구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이다.